

HIF월간 산업 이슈(08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업종별 주요 이슈

음식료 HMR의 인기로 시장을 확장 중인 푸드테크 스타트업

-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요가 일상화되면서 내식의 가성비와 가심비를 충족시키는 HMR 소비가 전 세대에 걸쳐 확대되자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푸드테크 시장이 확대
- 특히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커머스 영역에서 혼밥 문화를 겨냥한 밀키트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관련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고성장할 전망

화학(화섬) 중국발 수요 증가로 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한 스판덱스 시장

- 최근 애슬레저 수요 급증으로 스판덱스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면서 스판덱스 가격이 급등.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22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효성티앤씨 등 주요기업의 실적 상승이 기대
- 스판덱스 외에도 주요 산업용 섬유의 성장 여력이 높은 만큼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설비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금융사는 이와 관련한 영업기회 모색이 필요

철강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철강기업의 친환경 전략

- 지난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발표에 이어 19일에는 美 국회에서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이 제의되었고, 올해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기로 진입
- 이에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인 철강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친환경 공정 전환'과 '친환경 사업 진출' 등의 친환경 전략을 추진 중이며 중소·영세기업은 전략부재로 대응이 미흡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고점 논란과 전망

-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와 CLSA가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을 제기하고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가 4분기 PC용 D램 가격 하락을 전망하며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
- 3분기까지는 양호한 기업 및 수출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히 누적된 상황을 고려할 때, 현물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면밀한 시장상황 모니터링 필요

자동차 부품업 최근 동향 및 미래차 대응 현황

- 2021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부품 기업들의 실적도 전년대비 개선되는 모습
- 국내외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전기차 전환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엔진, 흡배기계 등 고위험군 부품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

조선 후판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구조 악화로 조선사 단기 실적 부진

- 철광석 가격 폭등으로 철강업계의 후판가격 인상으로 조선사의 단기 실적 악화. 조선사는 후판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사전적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 2분기 영업 손실 규모 확대
- 해상 환경규제 강화(EEXI, CII)와 컨테이너 시장 호황으로 컨테이너선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철광석 가격 하락 시 조선사의 수익 개선 가능성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전망

유통 국내 퀵커머스 시장 활성화

- 비대면 소비 확산, 라스트마일 경쟁, 배송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내 퀵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식배달서비스의 상품군 확대, 근거리 채널의 서비스 확대로 기업 진출 또한 활발
 - 퀵커머스의 성장은 그동안 온라인 대체 우려가 적었던 근거리 상권의 온라인화를 의미하며, 제한된 수요, 고비용 구조, 라이더 확보 등 리스크요인 대응력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필요
-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기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산업 이슈

음식료 : HMR의 인기로 시장을 확장 중인 푸드테크 스타트업

화학제품 : 중국發 수요 증가로 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한 스판덱스 시장

철강 :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철강기업의 친환경 전략

반도체 : 벌써 겨울이 왔나?(메모리 반도체 고점 논란과 전망)

자동차 : 자동차 부품업 최근 동향 및 미래차 대응 현황

조선 : 후판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구조 악화로 조선사 단기 실적 부진

유통 : 국내 쿠팡머스 시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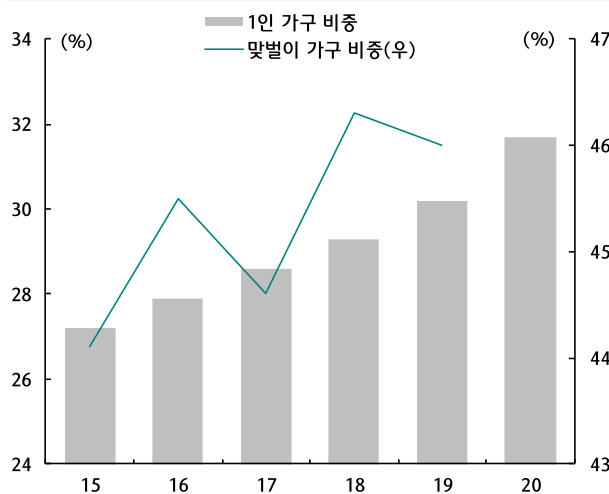
C10. 음식료 HMR의 인기로 시장을 확장 중인 푸드테크 스타트업

※ **Summary** :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등교가 일상화되면서 내식의 가성비와 가심비를 충족시키는 가정간편식(HMR) 소비가 전 세대에 걸쳐 확대. 이와 같은 HMR 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푸드테크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커머스 영역에서 혼밥 문화를 겨냥한 밀키트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어 관련 스타트업의 고성장이 기대

■ 가성비와 가심비를 갖춘 HMR, 소비자의 웰빙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지속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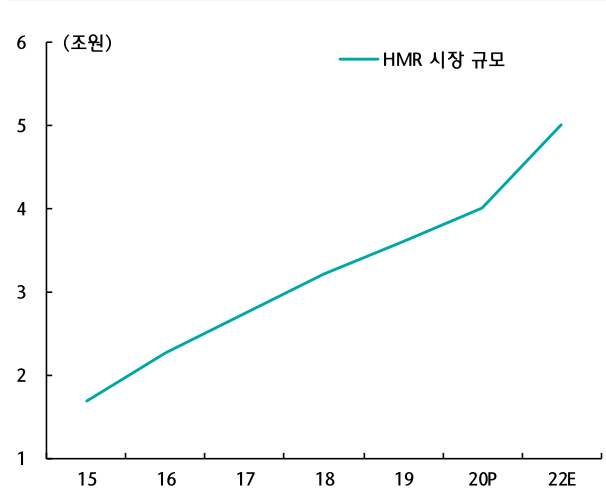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지속해 온 국내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이하 HMR)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그 인기가 더욱 증가
 - 최근 5년(2015~2020) 동안 두 자리 수(연평균 17.5%)의 고성장 추세를 지속해 온 국내 HMR 시장은 2020년 코로나 특수으로 5조 원 규모로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 온라인 등교가 일상화되면서 내식의 가성비와 가심비(편의성, 효율성)를 충족시키는 HMR(밀키트 포함)의 소비가 전 세대에 걸쳐 확대되고 있고, 특히 온라인 구매 비중이 크게 확대
- 향후 국내 인구구조 변화(1인 가구 증가 등) 하에 소비자의 웰빙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이 다양하게 공급되면서 HMR 시장의 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

그림01 | 국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02 | 국내 HMR 시장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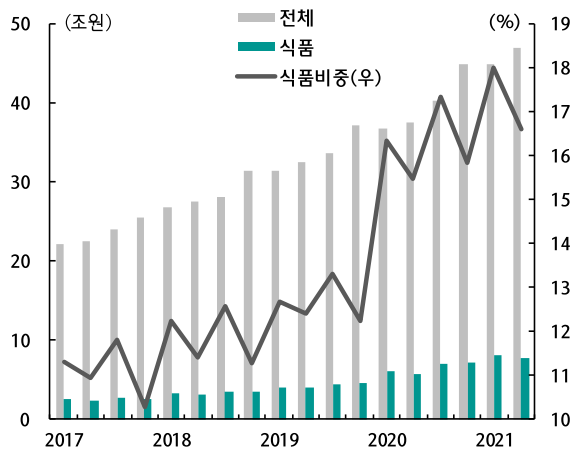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HMR 시장 확대 속에 다품종 · 소량생산 방식의 이점을 가진 스타트업의 활약이 기대

- HMR 시장의 인기에 편승하여 식품 및 유통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한편, 관련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스타트업의 영역이 확장
- 각양각색의 다양한 재료를 소분 포장해야 하는 HMR의 특성 상 자동화·대량화 생산 공정을 가진 대기업보다 다품종 · 소량생산 방식의 독자적인 제조 공정을 구축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이점이 부각
- 특히 밀키트는 노동집약적인 공정 상 대기업의 경쟁력이 크지 않아 스타트업의 활약이 기대되는 영역
- 이에 최근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커머스 영역에서 혼밥 문화를 겨냥한 밀키트 판매가 빠르면 늘면서 관련 스타트업이 고성장
 - 2011년 국내 최초로 밀키트 사업을 시작한 마이세프를 필두로 테이스티나인(2015), 프레시지(2016) 등이 대활약하며 밀키트 시장을 확장
- 또한 팬데믹 이후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상생 이미지 강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음식료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여
 - CJ제일제당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인 ‘프론티어 랩스’를 론칭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초기 투자비용을 지급하며, 이후 재평가하여 추가 투자를 결정
 - 롯데푸드는 건강 간편식을 유통하는 스타트업 프레시코드에와 협업하여 식단관리 도시락 ‘7 Days Plan’을 출시하고 지역별 거점이 되는 카페, 편의점, 사무실 등을 통해 판매
 - 농심은 ‘테크업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간식 큐레이션 스타트업 스낵포, 음료 경험을 제공하는 달차컴퍼니, 온라인 커머스 스타트업 패신저스 등에 투자
- 따라서 금융그룹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IPO나 M&A 등의 영업기회를 모색할 필요 

그림03 | 국내 온라인 쇼퍼 내 음식료 거래 규모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04 | 음식료 대기업과 푸드테크 스타트업 간 협력 예시



자료 : 롯데푸드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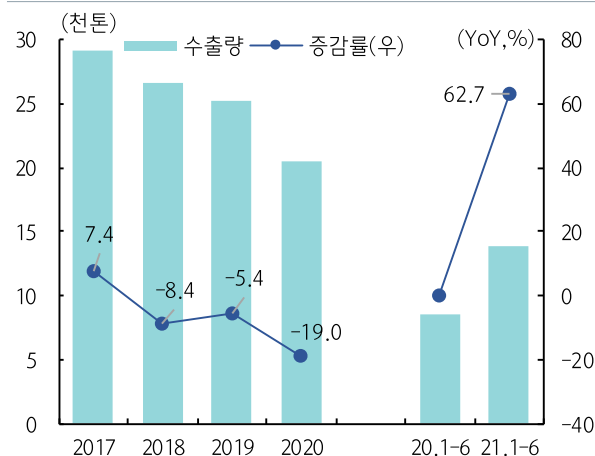
C20. 화학(화섬) : 중국발 수요 증가로 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한 스판덱스 시장

※ **Summary** : 최근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애슬레저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판덱스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스판덱스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 중. 당분간 글로벌 스판덱스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증설중인 물량이 2022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생산될 수 있어, 스판덱스 가격강세는 지속될 전망. 이로 인해 효성티앤씨를 비롯한 메이저 스판덱스 생산기업들의 실적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

■ 최근 스판덱스 수요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로 스판덱스 가격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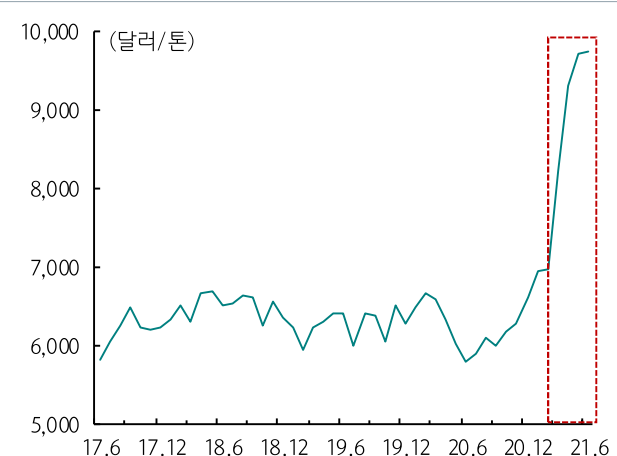
- 스판덱스는 신축성이 뛰어난 고부가 가치 특수 섬유로 일반 섬유에 10~15% 가량 투입하면 착용감과 강도 등이 향상되므로 스포츠 의류부터 속옷, 일반의류까지 폭넓게 사용
 - 스판덱스는 운동복에 10~35% 가량 첨가되며, 보정 속옷의 스판덱스 첨가율은 과거 16~20% 수준이었으나 최근 30~40%에 달하는 등 의류 전반에 스판덱스 혼용률이 상승
- 지난 1~2년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애슬레저(일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운동복) 수요 증가로 스판덱스의 의류 투입비중이 확대되면서 스판덱스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
 - 2021년 1~6월 누계 국내 스판덱스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예정되었던 스판덱스 증설이 대부분 지연 또는 취소됨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스판덱스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
- 이로 인해 올 들어 스판덱스와 스판덱스 주요 원재료 가격 모두 수직 상승 중
 - 지난 6월 기준 스판덱스 가격은 톤당 9,700달러로 전년동기비 약 70% 상승, 동기간 주요 원재료인 부탄다이올(BDO),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가격도 100% 이상 상승

그림05 | 국내 스판덱스 수출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06 | 스판덱스 및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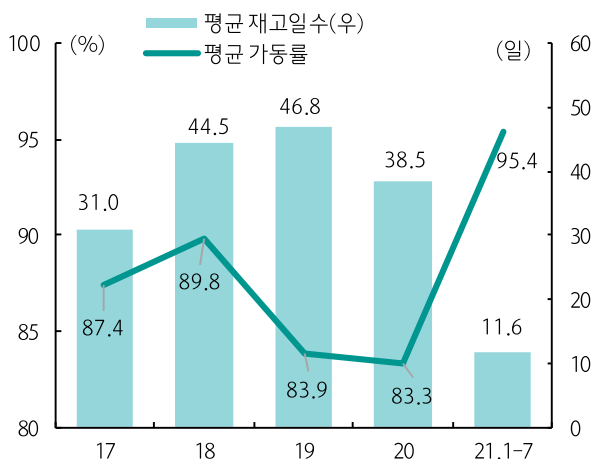
■ 이는 스판덱스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인

- 스판덱스 최대 수요국인 중국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애슬레저를 입은 연예인과 SNS 스타들이 등장하자, 주력 소비층인 바링허우와 지우링허우(80~90대생)의 구매가 급증
 - 중국 시장조사업체 따쉐 컨설팅(Daxue Consulting)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운동복 시장 규모는 494억 달러(55조원)에 달했으며 2021년은 전년비 10% 이상 성장한 546억 달러로 예상
- 또한 하반기 들어서면서 중국 의류 생산기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4분기 수요를 겨냥한 의류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스판덱스 품귀 현상이 심화
- 실제 중국 내 스판덱스 가동률은 연초부터 지속 상승하면서 7월 기준 97%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면서 스판덱스 재고일수는 점점 줄고 있음
 - 중국 스판덱스 재고 일수는 평균 10일 내외를 기록 중이나 지난 7월 중 4일까지 떨어짐. 이는 과거 17~20년 평균 35~45 일 수준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

■ 스판덱스의 수급 불균형은 2022년까지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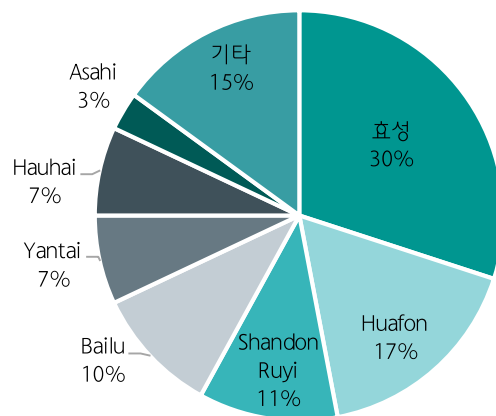
- 중국 애슬레저 수요 증가,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보복소비로 의류 판매 또한 회복되면서 21년 스판덱스 수요는 전년비 10만톤 이상(YoY, 10~12%) 증가할 전망
- 이에 국내 효성티앤씨와 중국 스판덱스 기업들이 글로벌 주요 지역에 스판덱스 공장을 증설 중이나 21년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물량은 4.5만톤(효성티앤씨 1.5만톤, Hauhui 3만톤)에 불과해 22년 상반기까지 수급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대부분의 기업이 시황이 좋아진 20년 4분기부터 공장 증설을 시작함에 따라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는 어려운 상황
- 다만 효성티앤씨 및 중국 기업들의 증설 계획에 따르면, 22년 하반기 15만톤 이상의 신규 설비의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22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수급 개선이 기대

그림07 |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 및 재고 일수



자료 : 하이투자증권

그림08 |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2020년 기준)



주: 효성티앤씨, 한국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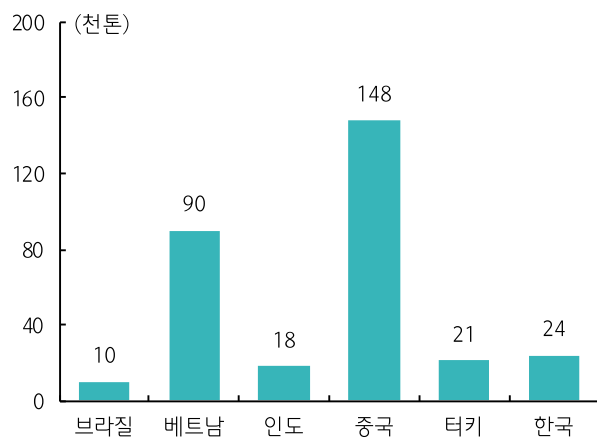
■ 글로벌 최대 스판텍스 기업인 효성티앤씨는 증설에 기반한 실적 상승 기대

- 현재 세계 스판텍스 시장은 효성티앤씨¹⁾가 점유율 30%로 압도적 1위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 후아펑(17%), 산둥루이그룹(11%), 바이루(10%) 등이 뒤를 추적 중
- 효성티앤씨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스판텍스 수요 증가와 가격 급등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증설을 완료한 인도, 중국 공장의 이익까지 확대되면서 상반기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
 - 21년 상반기 효성티앤씨의 매출액은 3.3조원으로 전년비 약 38% 증가, 동기간 영업이익은 약 5,200억원으로 전년동기비 7배 이상 증가
- ※ 효성티앤씨의 전체 매출에서 스판텍스의 비중은 30%지만, 영업이익에서는 90%를 차지
- 당분간 스판텍스의 호황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효성티앤씨는 수요 성장세가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고 있어 견고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효성티앤씨는 21년 터키와 브라질에 1.5만톤 규모의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22년에는 중국과 브라질에 4.5만톤 규모의 증설을 완료할 계획

■ 추가성장 여력이 높은 스판텍스를 비롯한 산업용 섬유 부문에서의 영업기회 모색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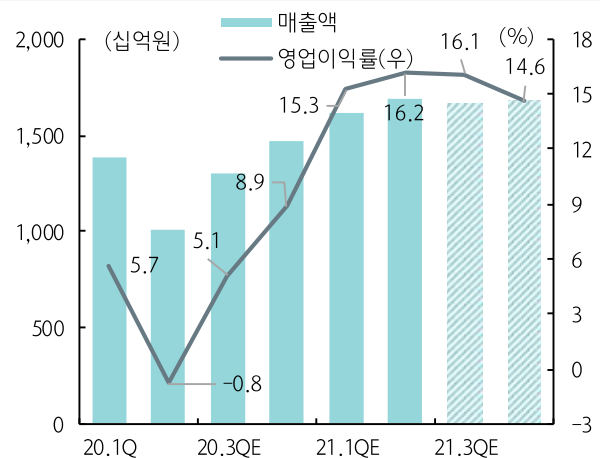
- 지난 수년간 범용섬유 부문의 부진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화섬산업은 최근 스판텍스를 비롯한 특수 섬유, 경량소재 등 산업용 섬유 부문의 호조로 성장세를 기록 중
- 산업용 섬유 시장은 현재 성장 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 경쟁강도가 높지 않으며 향후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판단됨
- 이에 국내 화섬기업들은 산업용 섬유 관련 연구개발 및 설비증설 등을 위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며, 금융사는 이와 관련한 선제적 영업기회 발굴이 필요 

그림09 | 효성티앤씨의 해외법인 생산 능력(2020년 말 기준)



자료 : 효성티앤씨

그림10 | 효성티앤씨의 실적 전망



자료 : Kis-value

1) 효성티앤씨는 18년 6월 효성그룹에서 섬유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주력제품은 스판텍스와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이며 이 중 스판텍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담당

C24. 철강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철강기업의 친환경 전략

※ **Summary** : 지난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발표에 이어 19일에는 美 국회에서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이 제의되었고 2021년부터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기로 진입. 이와 같이 전 세계적가 친환경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 산업인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략이 절실한 상황. 이에 국내 철강기업은 ‘친환경 공정 전환’과 ‘친환경 사업 진출’ 등의 친환경 전략을 추진

■ EU, 미국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변화

- 2019년 말 출범한 新 EU 집행위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인 그린딜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활동 패러다임으로 확산
- 지난 7월 14일 EU의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Fit for 55’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탄소 다배출 5개 산업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 이어서 7월 19일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기반의 미국에서는 민주당 상·하원의원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제의
- 국내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cheme)가 제3기(2021~2025)로 진입함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업종과 배출권 수량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

표01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주요 일정

시기	주요 내용
2007 ~2009	■ EU 집행위, 비공식적으로 제도 도입 논의, 산업계 반대로 무산
2019.12	■ 유럽 그린딜 발표, 202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및 제도 도입을 발표
2020. 3~10	■ EU 집행위, 초기 영향평가 발표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2020.5	■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세 언급 ■ 유럽 의회, 경기회복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등의 세제 도입 승인(9.16)
2021. 1Q~2Q	■ EU 집행위, 최종 영향평가 발표 ■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공식 입법안 제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재정리

표02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기 (2015~2017)	제2기 (2018~2020)	제3기 (2021~2025)
주요 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할당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할당 개시 : 무상 97%, 유상 3%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무상 90%, 유상 10%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자료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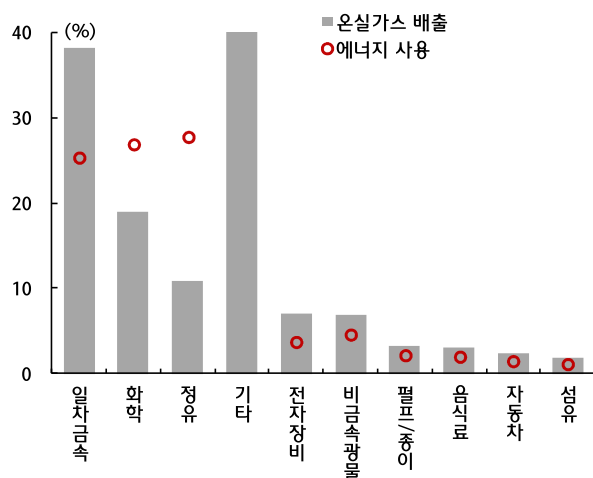
■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확대로 국내 1위의 환경오염 산업인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략이 절실

- 철광석과 석탄을 주원료로 산업의 쌀인 철강을 생산하는 철강산업은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
- 국내 2대 철강기업인 POSCO와 현대제철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 기업으로 주요 500대 기업 전체 배출량의 20% 정도를 차지
- 특히 최근 EU의 CBAM이 적용이 확정된 산업(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의 對EU 수출 규모를 고려할 때 철강산업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 － 규제 대상 산업 중 철강은 유일하게 對EU 수출 품목 중 10위권 내 산업('20년 수출 약 15억 달러)
- 이에 철강산업은 탄소중립 기조를 과거 보호무역주의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영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래 생존을 위한 친환경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

■ 국내 6대 철강기업, '그린철강위원회' 발족을 통해 철강산업의 환경 리스크 극복에 대한 의지를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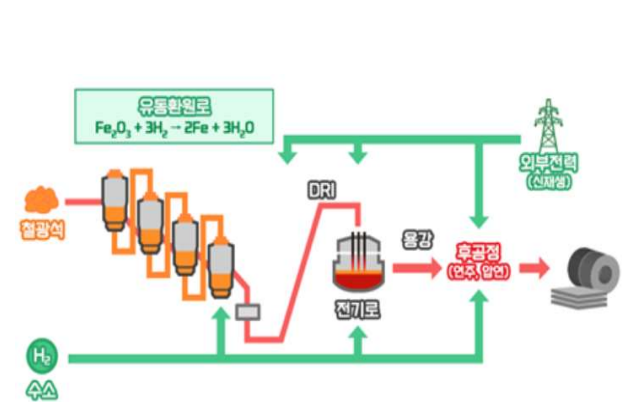
- 2021년 2월 국내 6대 철강기업(POSCO,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심팩)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
 - － 공동선언문에는 ①생산구조 전환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②그린철강위원회를 통한 정보 교환 공유, ③정부 정책과제 발굴 및 제언, ④국제협력 강화 등의 실천과제가 포함
- 주요 실천과제를 통해 그린철강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노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제철소를 구현할 것이라 선언
 - － 수소환원제철 방식 적용 시 기존의 석탄 대신 수소를 투입하여 쇳물을 생산함으로써 탄소 사용량이 25%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

그림11 |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비중



자료 : 환경부

그림12 | 수소환원제철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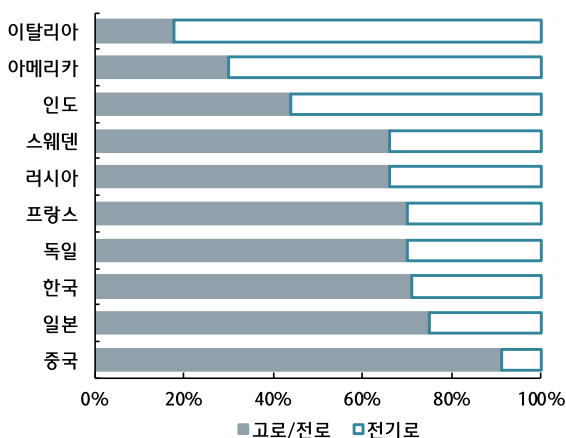


자료 : POSCO

■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략은 크게 '친환경 공정 전환'과 '친환경 사업 진출'로 구분

- 먼저 '친환경 공정 전환'은 현 사업을 유지하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축소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고로 제철방식을 보완·변경하는 것이 중요
- 철강산업 환경오염의 주범이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고로 제철방식이기 때문에 고로사는 ①수소환원제철, ②전기로 생산 확대, ③CO₂ 포집 및 저장 등의 방안을 모색
 - 국내 고로생산 비중은 전체 조강 생산 중 70% 내외로 유럽 선진국 대비 높은 편
- 다음으로 본업인 철강이 아닌 '친환경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전략으로 친환경차 배터리, 친환경 수소 생산 등의 사업을 시도
 - POSCO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소재사업을 확대 중이며, 현대제철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친환경 수소 생산 공정을 확보
- 한편, 과거 POSCO와 현대제철은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2021년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의 대 전환점을 맞아 협약 등의 방식으로 상생 전략을 모색 중
 - 2021년 2월 16일 POSCO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수소를 활용한 제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발표
 - 양사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중장기적으로 현대차가 사용하는 자동차 강판 등의 생산에 적용할 계획
- 반면, 중소·영세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장기 전략 부재, 인력 및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금융그룹은 기업의 탄소중립 정책, R&D 투자 수준, 재무 상태 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환경 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별로 차별화된 여신정책을 펼칠 필요

그림13 | 주요 국가별 고로·전기로 생산 비중 비교



자료 : 경제산업성, KOTRA 자료 재인용

표03 | 철강기업의 수소산업 현황

분야	수소 환원 제철 공법	부생수소 생산 및 판매
내용	고로 제철 공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쇳물을 생산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추출
주요 기업	POSCO 미쓰비시중공업 티센크루프	현대제철 아르셀로미탈 허베이철강

자료 : 언론보도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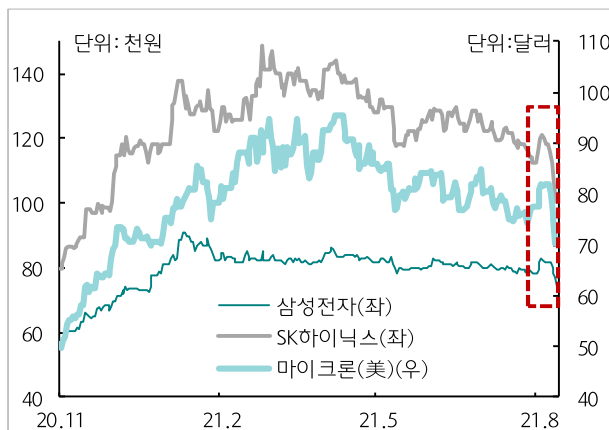
C26. 반도체 : 벌써 겨울이 왔나? (메모리 반도체 고점 논란과 전망)

※ **Summary** :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와 CLSA가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을 제기하고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가 4분기 PC용 D램 가격 하락 전망을 발표.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8월 들어 급락 양상.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의 근거는 반도체 품귀현상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과 수요처의 재고 누적에 따른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

■ 삼성·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하락으로 ‘반도체 고점 이슈’가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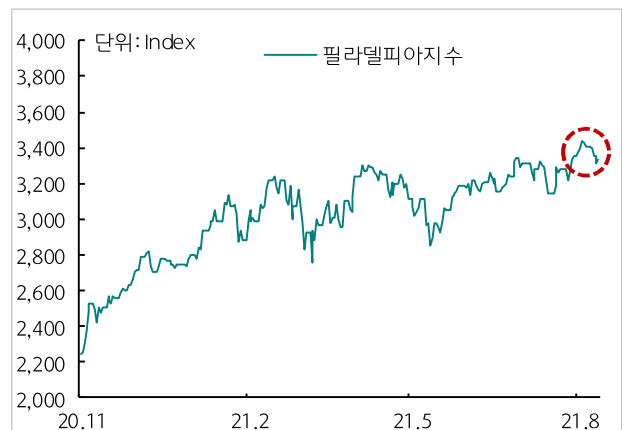
- 8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외인)의 삼성전자 매도세가 거세지며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연중 최저치를 기록
 - 삼성전자 주가(만원): 89,700('21.01.13) → 84,000('21.04.13) → 74,400('21.08.13)
 -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외인들은 삼성전자 주식 4조 6,309억원을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으며, 해당기간 삼성전자 시총은 42조원이 감소(486조원 → 444조원)
- 업계 2위와 3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美)주가 역시 삼성전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시장 우려가 대두
 - 8월 13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가는 전주(8월 6일) 대비 각각 13.9%, 13.5% 하락
-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하락으로 반도체 종합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하락세로 접어들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전망 역시 불확실성 증대
 - 필라델피아 지수는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 종합지수로 반도체 산업 업황을 대표

그림14 |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자료 : 블룸버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5 | 필라델피아지수(SOX) 동향



자료 : 블룸버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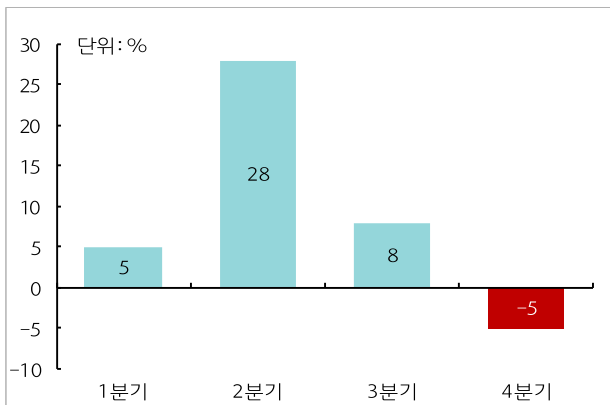
■ 글로벌 IB의 '반도체 고점론'과 시장조사업체의 'D램 가격 하락 전망'이 주가 급락을 야기

-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이 공론화 되었으며 이후 D램 현물가 역시 하락 전환
 - 모건스탠리는 8월 11일 보고서를 통해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업황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전환'
 - 이후 PC에 주로 사용되는 D램 현물가격은 8월 13일 기준 4.21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고점이었던 4.86달러(8월 8일) 대비 15% 이상 하락, 반도체 고점론이 시장에 반영
-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臺)역시 올 4분기부터 PC용 D램 가격이 최대 5%(QoQ)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시장 우려에 일조
 - 트렌드포스는 PC 제조업체의 D램 재고 누적과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PC, 노트북 수요 감소를 예상하며 D램 가격이 3분기 고점을 찍은 뒤 4분기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고점론의 핵심 근거는 반도체 품귀현상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과 반도체 사이클 변화

- '20년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자동차 이외의 가전, PC, 스마트폰 등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전방산업이 생산 차질을 겪으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 증가
 - 반도체 품귀현상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가격(Price) 인상의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방산업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산업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야기될 수 있음
 - 반도체 품귀현상은 차량용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되었으나, 스마트폰, TV, PC 등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전방산업까지 확산되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 가능성이 제기
- 특히 기업들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재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시장 대응력이 개선되고 있어 과거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반도체 재고를 대량으로 축적하면서 가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 1.5년 단위로 움직이던 반도체 사이클도 단축 여지가 존재

그림16 | '21년 PC D램 고정가격 전망(QoQ,전망 최대지)



자료 : 트렌드포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04 | 메모리 반도체 주요 전방산업 생산 차질('21)

산업	현황
스마트폰	- 반도체 부족으로 2분기 성장률 10% 감소 2분기 삼성전자 출하량 20% 감소 추정 - 구글, 5세대 픽셀폰을 미국, 일본에서만 출시
PC	- 공급 차질로 2분기 성장률 둔화 (55.9% → 4.6%) - 가트너는 2분기 성장률 둔화 원인을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지목하고, 향후 악영향도 지속 전망
가전	-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일본 공조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으며 미쓰비시, 후지프 등이 에어컨 생산라인 축소 - X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 콘솔 감소

자료 : 언론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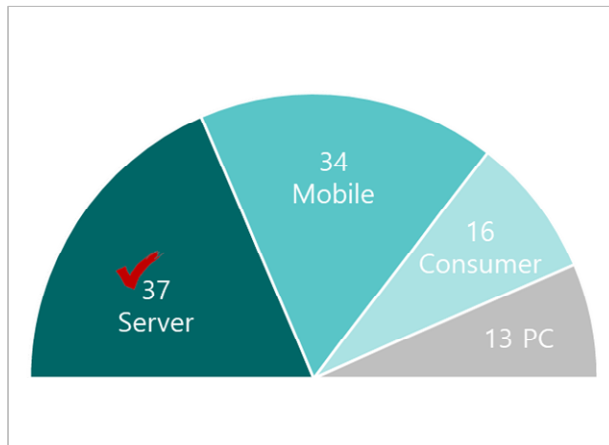
■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반론도 등장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향후 전망을 여전히 낙관

- 글로벌 IB 골드만삭스는 모건스탠리와 달리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유지하며 서버 DRAM 수요 증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호조가 지속될 것임을 주장
 - 골드만삭스는 8월 12일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지’ 보고서를 통해 ‘서버용 DRAM의 견조한 수요가 PC DRAM 쪽 부진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
 - PC가 DRA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 반면, 서버는 30%에 달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
- 역대급 2분기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컨퍼런스콜을 통해 견조한 수요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는 시장 수요를 의미하는 3분기 D램 비트그로스(수요)를 한자릿수 초반 증가로 예상했으며, 하이닉스 역시 하반기 계절적 수요 증가를 이유로 향후 시장 전망을 긍정

■ 향후 시장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공급 경쟁과 수요 변동은 주시 필요

- 수출과 기업 실적에 직결되는 3분기 고정거래가격이 2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의 급작스러운 실적 둔화 가능성은 당분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3분기 장기계약 시점인 7월 주요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직전 장기계약 시점인 4월 대비 PC D램 7.8%, 서버용 D램 6%대, 낸드도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어 향후 전방산업 업황과 공급 이슈에 따라 현물가격의 변동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시장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
 - 삼성, SK하이닉스 등 공급처의 재고 수준은 1주 수준으로 타이트한 반면 PC 업체 등 수요처는 공급 불확실성 대처를 위해 10주 이상의 재고를 비축한 것으로 알려짐
 - 결국 공급처와 수요처의 재고 상황 불일치는 현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며, 특히 전방산업 업황과 글로벌 공급 경쟁 이슈가 주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림17 | '21년 D램 수요 비중 전망(%)



자료 : D램익스체인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05 |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컨퍼런스콜('21.2Q)

기업	21년 하반기 전망 발언
	· 신규 CPU 및 고객사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서버 및 모바일 수요 지속 성장 전망 · 메모리는 바이러스 확산과 일부 공급난 지속으로 불안 요인 존재하나, 수요 펀더멘털 견조 전망
	· 3분기부터 계절적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메모리 시장 수요는 '우호적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최근 부품 수급 이슈가 있었으나, 연말 및 내년까지 (우호적인) 수급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전망
	· 21년 연간 D램 비트 그로스 (수요) 20% 이상 전망 · 공급 여건 대비 수요 강세로 D램 수요 지속 성장

자료 : 각사 발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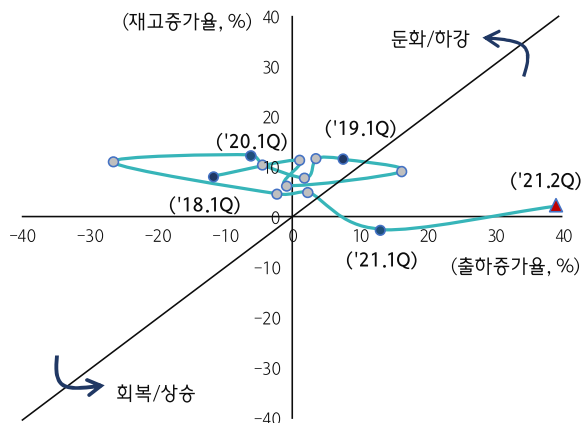
C30. 자동차 :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 최근 동향 및 미래차 대응 현황

※ **Summary** : 반도체 수급난에도 자동차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며 車 부품업의 실적도 회복세.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앞당기며 전기차 전환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대응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국내 車 부품업의 약 47%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사업영역 축소 고위험군에 소속되어 있고, 완성차의 종속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사업재편이 필요

■ 기저효과 및 수출 호조로 2021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부품업의 생산 및 출하가 회복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급난 영향으로 2분기 들어 가동률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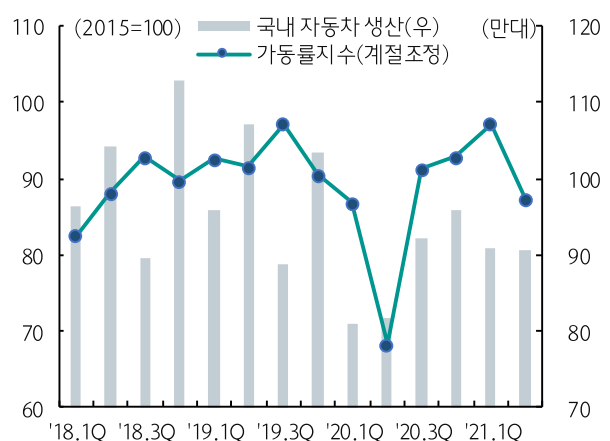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 위축에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181만대를 기록
 - 2021년 상반기 내수 판매량 75.6만대(-5.7%, YoY), 수출 105.8만대(28.9%, YoY)
- 전방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생산지수도 2020년 4분기부터 100을 상회하고 있으며, 재고·출하 동향으로 본 경기순환흐름도 2021년 1분기부터 회복 국면에 위치
 - 계절조정 생산지수 : 77.4('20.2Q)→97.9('20.3Q)→101.5('20.4Q)→107.3('21.1Q)→105.1('21.2Q)
- 다만,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가동률지수는 2021년 1분기 97.2에서 2분기에 87.3으로 하락

그림18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9 |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가동률지수



자료 : 통계청, K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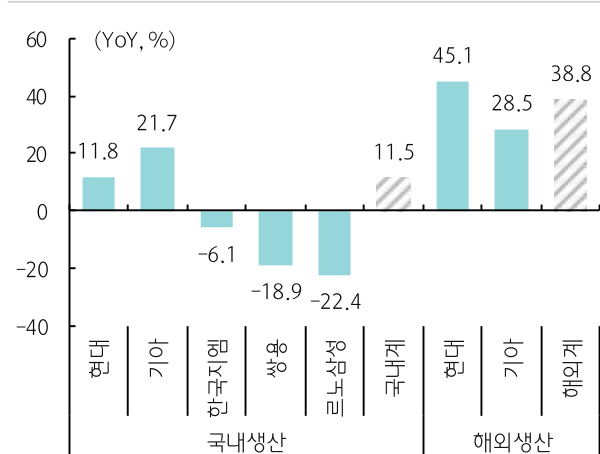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현대기아차와 외국계 3사의 생산 및 판매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

- 현대기아차의 2021년 상반기 국내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156만 9,985대를 기록했으며, 동기간 해외생산량 또한 38.8% 증가한 171만 9,714대로 호조
- 현대기아차의 국내 자동차 생산 점유율은 2016년 76.6%에서 2021년 상반기에는 86.5%로 약 10%p가 상승하며 시장 장악력이 증가
- 반면,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등 외국계 3사의 '21년 상반기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2.3% 감소한 24만 319대에 그쳤으며, 국내 합산 판매량도 전년동기보다 35.4% 감소한 8만 8,625대에 머무르는 등 생산·판매 실적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이는 신규 모델 부재와 노사갈등, 쌍용차 법정관리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였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생산차질까지 빚었기 때문

■ 국내 자동차 생산 호조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부품사 실적은 전년대비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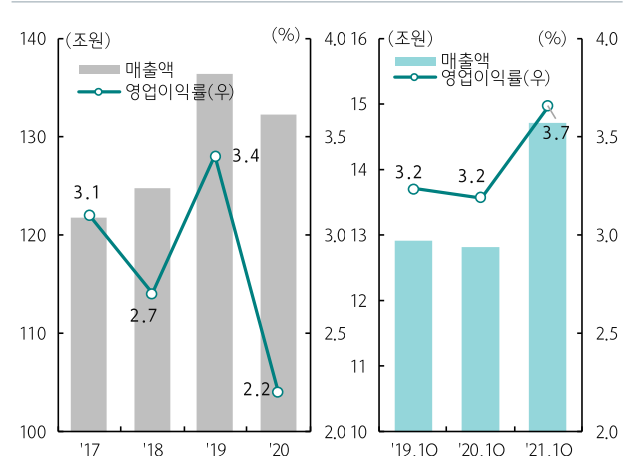
- 분기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 1분기 합산 매출액은 완성차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약 15% 상승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7%로 전년동기대비 0.5%p 개선
- 영업적자 기업 비중도 2020년 1분기 42%에서 2021년 1분기 23%로 크게 감소
- 현대모비스의 '21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동화 부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6.5%, 전기대비 4.8% 증가한 10.3조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5.5%로 개선세 지속
-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 감안할 때 '21년 2분기 전체 부품업의 실적 개선폭은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성차 양극화로 부품사의 실적 격차가 커질 전망

그림20 | 2021년 상반기 완성차 업체별 자동차 생산 증가율



자료 : KAMA

그림21 |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실적 동향



주 : 연간실적은 외감이상 1,251개사 별도실적 합산 기준,
분기실적은 분기보고서 제출한 97개사 별도실적 합산 기준
자료 :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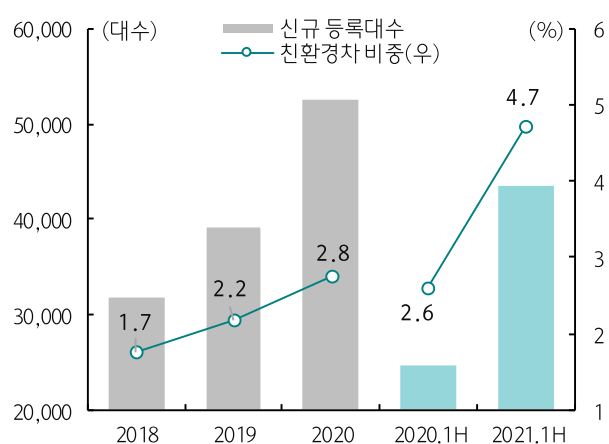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국내 전기차와 수소차를 합한 친환경차 침투율은 4.7%로 빠르게 상승 중

- 2021년 상반기 국내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약 2.8%이며, 전년동기대비 76.9% 증가한 4만 3,599대로 2019년 연간 수준을 넘어섬
- 전체 등록대수 중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중은 각각 4.3%, 0.5%로 아직 내연기관차보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정책 등으로 보급 속도가 가파른 편
- 그동안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판매를 주도했으나, 2021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 5, EV6, Electrified G80 등 신규 모델이 본격 출시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
- '21년 6~7월 현대차 아이오닉5는 7,114대가 판매되어 5,471대(수입자동차협회 및 국토교통부 등록통계 추정 기준)에 그친 테슬라를 넘어섬

■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친환경차 가속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대응 속도가 기존 계획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사의 전동화 전환에 대한 시급성 증대

- 바이든 대통령은 '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친환경차로 만들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주요 자동차업체가 동참하기로 함
- EU는 2050 탄소중립 중간 목표를 담은 '핏포55'를 발표하면서 2035년부터 유럽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도 기존보다 강화
- 현대기아차는 미국, 유럽 등 핵심 시장에서 2040년 전면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주요국에서 전동화 목표를 앞당김에 따라 전략 조정이 불가피
- 국내 자동차 부품사의 현대기아차 납품 의존도는 약 88%(1차 협력사 기준)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품목 전환 등 사업구조 개편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

그림22 | 국내 친환경차 침투율



주 : 전기차 + 수소차 합산 국내 신규 등록대수 기준
자료 : KAMA

표06 | 빨라지는 주요국 전기차 전환 시계

국가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 발표
미국	-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EV 판매 비중 2030년 50%로 확대 - 자동차 연비규제 재강화 : 2026년까지 40마일/갤런 → 52마일/갤런 - 1조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 상원 통과(8/10)로 전기차 확대를 지원
EU	- 핏포55(Fit for 55) 발표(7/14) :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 2030년 EU 내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승용차는 37.5% → 55%, 승합차는 31% → 50%로 강화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약 47%가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위험분야에 해당하며, 기술개발 시급

- 정부의 車부품기업 실태조사 결과, 미래차 전환으로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엔진부품, 동력전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4,195개사로 전체(8,966개사)의 47%에 해당
 - － 전체의 80%가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완성차에 대한 종속성 높아 충격 취약
- 감소군에 해당하는 기업 중 엔진·배기·연료계 등 2,815개사가 고위험군에 속해있으며, 2030년 전기차 비중이 약 33%라고 가정할 때 900개 기업이 감소할 수 있음
- 지금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매출액의 0.98%에 불과

■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나선 가운데 관련 여신기업들의 사업 영역 점검 및 고위험군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금융지원 기회를 모색

- 정부는 2030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미래차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R&D 지원, 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의 대책 수립
 - － 주요 금융지원 정책으로 설비투자M&A 소요자금관련 정책금융 제공, 5천억 규모의 미래차 펀드 조성, 금융컨설팅, 미래차 소재·부품 설비투자 관련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 포함
- 최근 국내 부품기업들이 기존 요소기술을 이용하거나 협력사 연계, 신규투자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생산품목 전환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 부품 기업들의 친환경차 전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여신 기업들의 사업재편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신규 금융지원 기회를 모색할 필요 

표07 | 미래차 방향별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분포

미래차 방향	분야	내용	기업수 (개사)	비중 (%)
감소군	엔진부품	엔진, 흡·배기계 등	2,087	23.3
	동력전달	변속기, 샤프트 등	1,416	15.8
	전기장치	배선, 점화 등	692	7.7
유지군	조향/연가/제동	-	1,214	13.5
	차체/시트/안전	-	2,941	32.8
	공조 & 기타	-	406	4.5
확대군	미래차 주요 부품	배터리, 각종 전장 등	210*	2.3

주 : 확대군 기업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전자IT기업 포함시 619개사로 추정
 자료 : 관계부처 합동(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21.6)

표08 |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 사업재편 사례

재편 전략	기업	기존 영역	신규 영역
요소 기술 활용	우진공업	산소배기온도 센서	수소압력센서
	동양피스톤	엔진피스톤	연료전지 하우징 및 스택부품
	인지컨트롤스	엔진계 냉각부품	수소차 열제어통합모듈
신규 투자	디에스씨	시트프레임	전기차 배터리용 버스바, 무선전력전송 모듈
	베바스토홀딩스	선루프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협력사 연계	유라테크	점화코일	수소차 COD 히터
	삼보모터스	변속기부품	수소저장탱크
	엔티엠	내연기관 냉각밸브	연료전지스택 냉각밸브
	지엠비코리아	내연기관부품	전기수소차 통합 열관리 부품

자료 : 한국자동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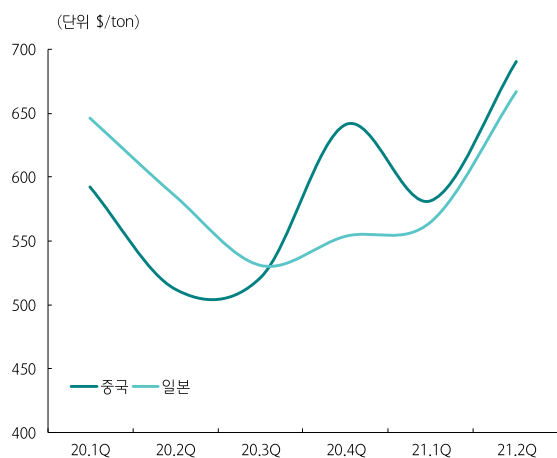
C31. 조선 : 후판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구조 악화로 조선사 단기 실적 부진

※ **Summary** : 포스코와 한국조선해양은 철광석 가격 폭등에 따른 후판가격 인상에 합의하며 조선사 단기 실적 악화됨. 조선사는 원가 상승 예상치를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하며 2분기 영업 손실 기록. 해상 환경규제 강화(EEXI, CII)와 컨테이너 시장 호황으로 컨테이너선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철광석 가격 하락 시 조선사의 수익 개선 가능성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전망.

■ 철광석 가격 급등에 따른 후판가격 상승으로 조선업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

-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이후 가파른 회복과 중국, 호주 간의 외교적 갈등 및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생산국의 생산 차질로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원자재 가격 상승함
- 포스코와 한국조선해양은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라 후판 가격을 21년 상반기 톤당 70만원에서 하반기 톤당 115만원으로 인상에 합의하며 선박 건조 원가 상승 압력 증가
 - 국산 후판가 인상에도 중국산 수입보다 저렴해 공급망 다변화와 같은 대안이 없는 상황
 - 중국과 일본은 내수용 후판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철강-조선업체 협력 중요성이 높아짐.
-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는 영업 손실 기록하며 단기 수익성 악화,
 - 국내 조선사는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을 사전적으로 반영하며 영업 손실 기록 (공사손실충당금 규모는 한국조선해양 8960억원, 삼성중공업 3720억원)

그림23 | 국가별 후판 가격 동향 (수출액 기준)



자료 : k-STAT

표09 | 국내 조선 3사 최근 실적 추이 (억원)

업체	개별 F/S	20.4Q	21.1Q	21.2Q
한국 조선 해양	매출액	19,62	36,815	37,973
	영업이익	-690	675	- 8,973
	영업이익률	-3.45%	1.84%	-23.6%
삼성 중공업	매출액	16,653	15,746	17,155
	영업이익	26	-5,068	-4,379
	영업이익률	0.2%	-32.2%	-25.5%
대우 조선 해양	매출액	16,648	11,018	-
	영업이익	-2,326	-2,129	-
	영업이익률	-14%	-19.3%	-

자료 : DART, 각 조선사 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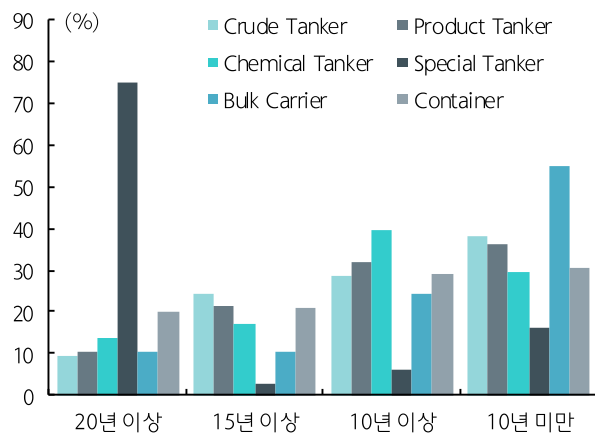
■ 후판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전가를 위해서는 약 10% 이상의 선가 상승이 필요

- 선박 건조 원가 중 후판의 비중은 약 18%이며 후판 가격 인상 폭이 약 65%인 점을 감안할 때, 신조선가는 최소 11.7% 이상 인상되어야 원가 상승치의 전가가 가능함
- 최근 선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신규 수주 선박에 대해서는 원가 전가가 가능하나, 기존 수주 선박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3분기까지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
 - 컨선(5,500 TEU) 20년 11월 \$ 53.5백만에서 21년 8월 \$ 66.5백만으로 약 24.3% 상승

■ 최근 환경규제 강화와 컨테이너선 시장 호황으로 인해 국내 조선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정적 매출 규모 확보 및 내년 상반기 철광석 가격 하락 시 수익성 개선 여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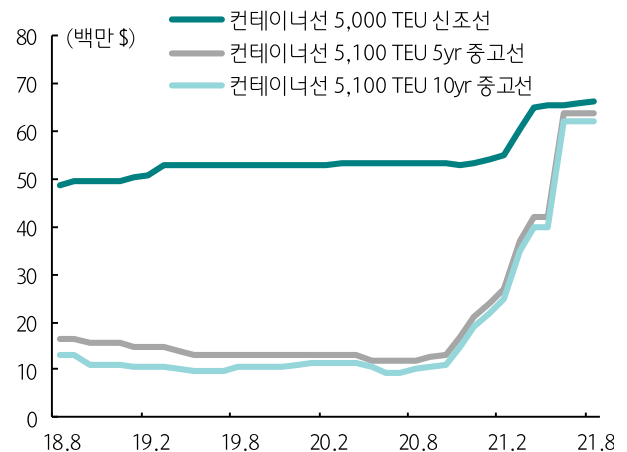
- 환경규제 강화(EEXI, CII)로 인해 국내 조선사로의 친환경 선박 수주가 증가할 전망
 - 규제 영향으로 교체 대상 선박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수주량 증가 예상
 -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우위로 국내 조선사 수주는 증가할 전망
- 컨테이너선 운임 강세 지속으로 시장 호황에 따른 조선사의 컨테이너선 수주 증가
 - 컨테이너선 운임은 20년 11월 SCFI 1,877p에서 21년 8월 4,281p로 약 128% 상승하며 역대 최고 운임 기록, 중고선가 상승에 이어 신조선 수주 증가 및 선가 상승으로 이어짐
- 증가하는 수주량은 철광석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폭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음
 - 내년 상반기 철광석 가격 강세가 지속할 경우 영업 실적 부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철광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선가 인상분을 고려할 때 조선사의 수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 선종별 선령 현황



자료 : Clarkson

그림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자료 : Clarkson

G. 종합유통 : 국내 퀵커머스 시장 활성화

※ **Summary** : 비대면 소비 확산, 라스트마일 경쟁, 배송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내에서도 즉시 배송을 뜻하는 퀵커머스 시장이 활성화. 이륜차 배송을 갖춘 음식배달 서비스가 상품을 확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SSM, 편의점 등이 자체 매장을 MFC로 활용하면서 진출이 활발해짐. 퀵커머스 시장 규모의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 및 협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비대면 소비 확산, 라스트마일 경쟁,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내 퀵커머스 시장이 활성화

- 2018년, 중국 알리바바 최고 경영자(CEO) 장융은 신선식품 매장 ‘허마셴성’의 30분 배송 서비스가 냉장고를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퀵커머스에 대한 관심을 유발
 - 허마셴성이 보유한 오프라인 매장, 배송 인력, 데이터 처리능력을 통해 즉시 배송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량 구매, 운반, 보관의 불편함을 해소
 - 퀵커머스(Quick Commerce, 즉시 배송) : 소형 모빌리티(도보, 이륜차 등)와 MFC(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을 활용한 즉시 배송 시스템
- 국내에서도 비대면 소비의 확산, 라스트마일 경쟁 심화, 음식배달 기반의 이륜 배달 인프라 확충 등으로 배송 시간이 극도로 단축된 퀵커머스가 유통 시장의 화두로 부상
- 배송 인프라를 보유한 음식배달 서비스(배달의 민족 등), 근거리 매장의 MFC로의 전환이 용이한 편의점(GS리테일 등), SSM(롯데슈퍼 등)을 중심으로 기업 진출도 활발
 - 이륜차 배송 플랫폼(메쉬코리아, 바로그 등), 온라인 유통(11번가 등)도 진출

그림26 | 중국 허마셴성의 배송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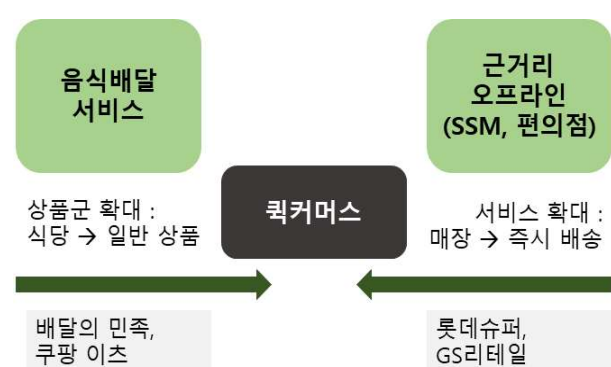


허마셴성의 배송 시스템 경쟁력 :

1. 물류 기능을 갖춘 오프라인 매장
2. 배송 인프라(주로 이륜차)
3. 물류 처리를 위한 IT 인프라(빅데이터, AI 등)

자료 : 우정정보, S비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7 | 국내 퀵커머스 확산과 참여 업체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국내 퀵커머스는 음식 배달 서비스의 상품군 확대에서 시작되었으며, B마트, 쿠팡이츠 마트 등이 이룬 배송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 중

- 국내 퀵커머스 시장은 이륜차 배달 인프라를 갖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의 음식배달 플랫폼이 식품류, 생필품으로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시작됨
- 이륜차 배달 선도 업체인 'DH코리아'(배달의민족 운영)가 2019년 식품, 생필품 등을 1시간 이내 배송하는 'B마트'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국내 퀵커머스 시장을 선점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30여개 자체 도심 MFC를 통해 7,000여가지 상품을 판매
 - B마트의 2020년 매출액은 1.07억유로(1,450억원), 주문건수 1,000만건 기록
 - 2021년 8월, 기존 서울 및 일부 수도권에 국한된 서비스를 대전 지역으로 확장
- 쿠팡의 경우,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서비스를 일반 상품(신선·가공식품, 생필품 등)으로 확대한 '쿠팡이츠 마트'를 서울 송파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 쿠팡이츠 마트는 기존 퀵커머스 배송 시간인 20~30분을 15분 이내로 단축
 - 자체 MFC에서 대기 중인 전담 배달원이 주문 즉시 배송하면서 시간을 단축

■ 근거리 상권의 오프라인 업체들은 기존 점포를 도심 MFC로 활용하면서 퀵커머스에 진출

- SSM, 편의점을 중심으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 또한 최근 자체 도심지 매장을 MFC로 활용하면서 도보, 이륜차 등을 통한 퀵커머스 서비스를 확대
 - 특히, 규제와 업체 간 경쟁으로 사업성이 저하된 SSM의 경우 신선식품 상품 구색이 편의점 대비 우수하고 대형마트 대비 접근성이 양호한 점을 활용하여 퀵커머스 진출 활발

표10 | 국내 퀵커머스 선점 서비스, B마트 개요

구분	내용
출시	- 2018년, '배민마트' 시범서비스 출시 - 2019년 11월, B마트 정식서비스 런칭
특징	- 국내 퀵커머스 시장 선점 - 음식배달에서 일반상품으로 상품군 확대
지역	-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부 - 최근 비수도권 최초로 대전 지역 서비스 개시
배송	- 30분~1시간 이내 배송 - 자체 물류센터 31곳 보유
품목	-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량 상품 배달 - 신선식품, 생활용품 등 약 7,000여개 품목

자료 : DH코리아, 언론자료

표11 | 국내 퀵커머스 사례

회사명	플랫폼	퀵커머스	비고
DH코리아	배달의민족	B마트	선점 업체
DH코리아	요기요	요마트	매각 진행 중
쿠팡	쿠팡이츠	쿠팡이츠 마트	15분 배송
CS리테일	우리동네 딜리버리	우동마트	편의점 + SSM
롯데쇼핑	롯데슈퍼	퇴근길 배송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시간 배송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미정	현재 준비 중
BGF리테일	CU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입점	제휴 중심
CJ올리브영	올리브영	오늘드림	
브이	미정	미정	오아이스마켓, 메쉬코리아 JV

자료 : 언론자료 취합

- 롯데쇼핑은 한시간 배송 서비스인 '퇴근길 배송'을 서울에 이어 최근 인천, 경기권으로 확대하였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전국 매장을 이용하여 쿠팡커머스 도입
 - 이마트 또한 에브리데이 매장을 통해 쿠팡커머스 도입 계획을 발표
- GS 리테일은 법인 통합 이후 편의점 'GS25'와 SSM 'GS더프레시'를 통한 쿠팡커머스 서비스를 위해 전용 어플리케이션 '우딜'을 런칭하고 '우동마트'를 운영

■ 국내 쿠팡커머스 시장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 및 합종연횡이 예상되며, 근거리 상권의 온라인화 확대에 업체별 대응력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필요

-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와 IT, 물류 인프라의 발전에 따른 쿠팡커머스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배달 인력 및 도심지 물류 센터 등의 배송 인프라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따라 GS리테일의 메쉬코리아 지분 투자, 메쉬코리아와 오아시스마켓의 조인트벤처 설립 등과 같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합종연횡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 한편, 쿠팡커머스 성장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 대체 우려가 비교적 적었던 근거리 상권에 서도 온라인화가 확대되면서 업체별 대응능력에 따른 선별적 접근 필요
 - 백화점, 대형마트는 이미 온라인 대체로 소비자 이탈 및 수익성 저하를 겪고 있으며, 쿠팡커머스 확대에 의해 근거리 소량 구매 채널인 편의점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식품류 중심의 제한된 수요 기반, 소량 단건 배송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구조, 라이더 확보 경쟁에 따른 배송료 상승 등 리스크 요인 관리 능력에 따라 업체별 차별화 예상
 - 가격 경쟁력이 낮아 즉시 필요한 일부 상품군(식품, 생필품 등)에 수요가 국한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연계한 수요 유발 전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식품류 수요 시간이 기존 음식배달과 중첩되면서 라이더 확보 경쟁 심화 

표12 | 쿠팡커머스 사업을 위한 투자 및 협업 사례

회사	내용
GS리테일	- GS25(편의점), GS더프레시(SSM), GS홈쇼핑 통합 이후 온·오프라인 시너지 추구 - 배달대행 매쉬코리아 지분 19.53%를 인수 - 요기요 인수 참여
11번가	- 2021년 2월, 바르고 3대 주주로 등극(250억원 투자)
오아시스마켓	- 2021년 7월, 메쉬코리아와 신석식품 온라인몰 오아시스마켓은 쿠팡커머스 합작사 '브이(V)' 설립 - 조인트벤처(JV) 지분율 : 오아시스마켓 50%+1주, 메쉬코리아 50%-1주
BGF리테일	- 도보전문업체 엠지플레이와 협업하여 매장 근처 30분 도보 배달 서비스 운영

자료 : 각 사, 언론자료

표13 | 쿠팡커머스의 특징

특징	내용
라스트마일 경쟁력	- 즉시 배송으로 편의성 극대화 - 프리미엄(편의성+프리미엄) 트렌드 적합
비대면 소비	- 소량 상품에 대해서도 비대면 소비 실현
제한된 수요 기반	- 배송 시간 단축이 중요한 일부 상품에 수요 국한 - 인플루언서 기반 라이브커머스로 수요 유발 확대 예상
고비용 구조	- 소량 즉시 배송 및 도심지 MFC의 고비용 구조 - 비용 효율화를 위한 IT(주문 예측 등) 인프라 필요 - 가격 경쟁보다는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전략 필요
라이더 확보 경쟁	- 주력 상품인 식품의 경우 기존 음식 배달과 수요 시간대가 중복되어 라이더 확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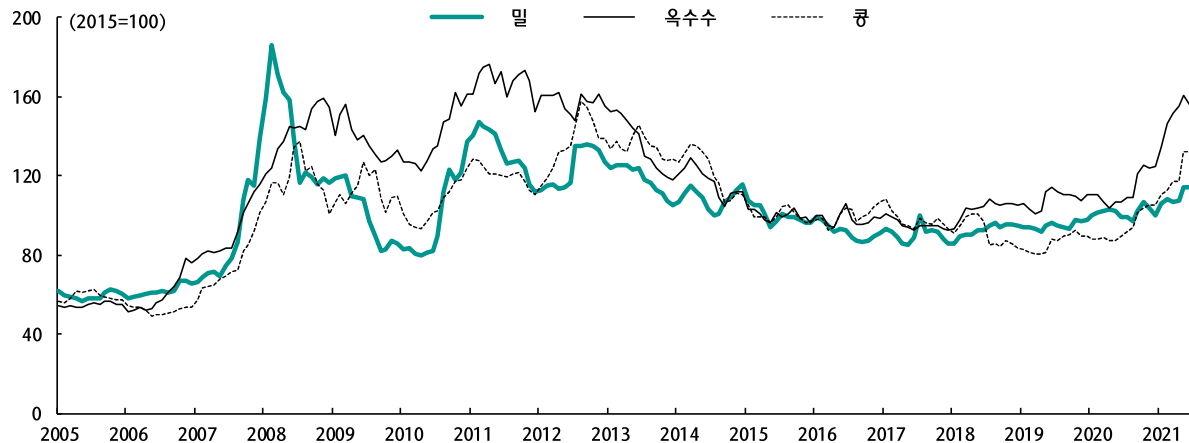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별 주요 지표

음식료(C1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8 | 국내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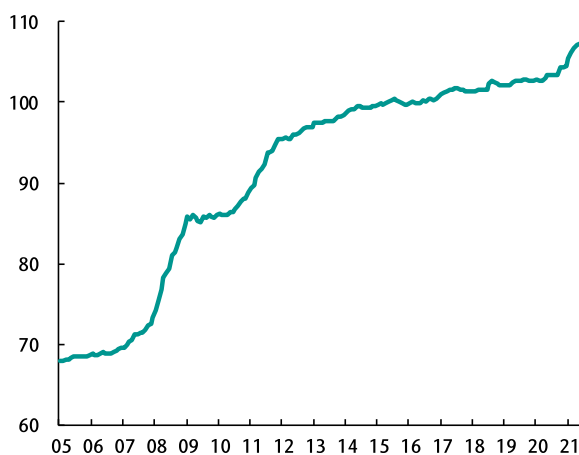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국제 곡물가격지수가 2021년 5월을 고점으로 조정 중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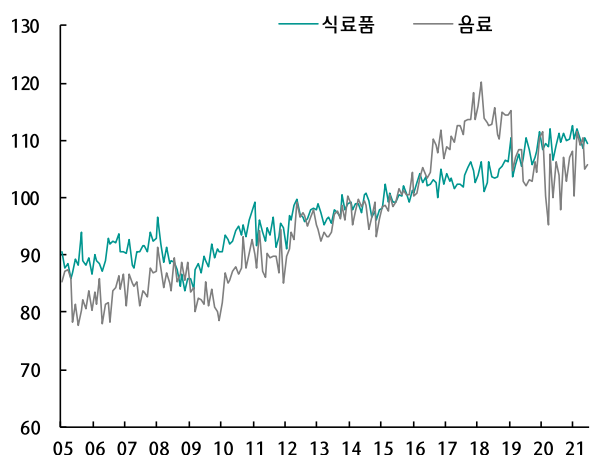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생산 및 물류 시스템 문제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최근 2021년 5월 최고점을 경신하고 조정받는 중
- 국제 곡물가격지수가 5월 최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식량가격지수에서 7월 곡물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9.6% 정도 높은 125.5p를 기록

그림29 | 음식료품 제품가격 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30 | 음식료품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HMR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 ■ 2021년 음식료품 출하지수가 상승 추세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8월 음식료 - 전반적으로 식료품 및 음료 출하지수가 상승 추세이나, 식료업계는 라면, 우동, 냉면 등의 가공식품 가격을 5~7% 인상 품은 2월을 고점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음료는 큰 변동성을 시현

화학(화섬)(C2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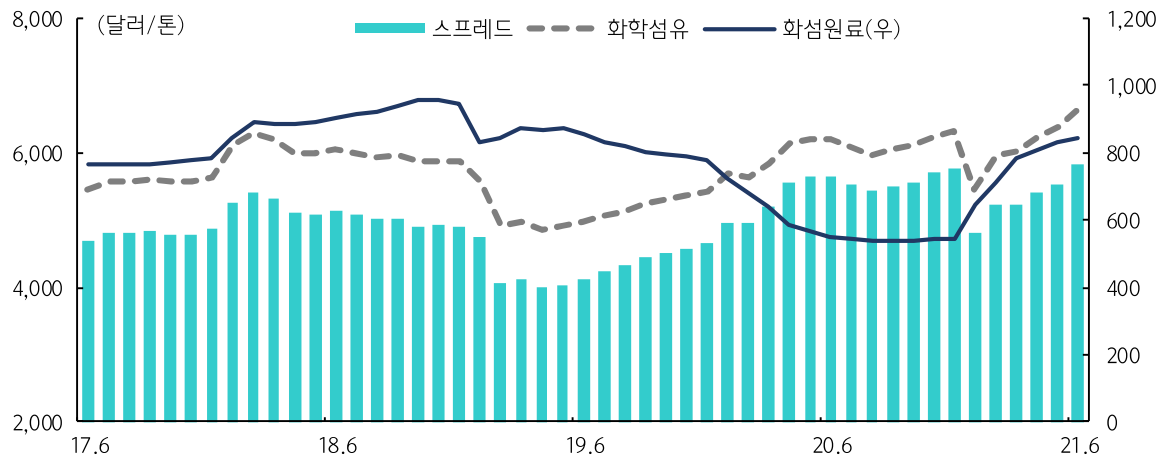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1 | 화학섬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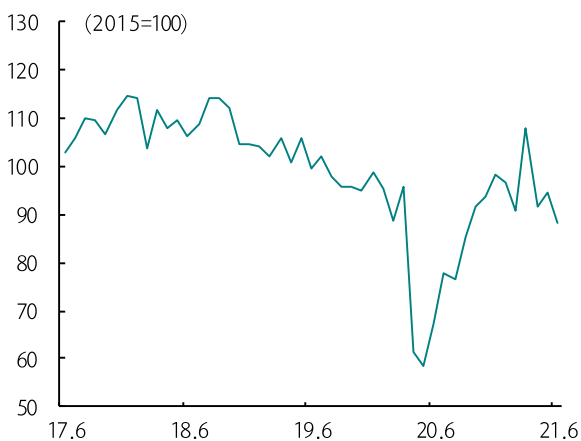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유가 강세로 화섬원료 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요 호조로 화섬가격도 동반 상승하여 스프레드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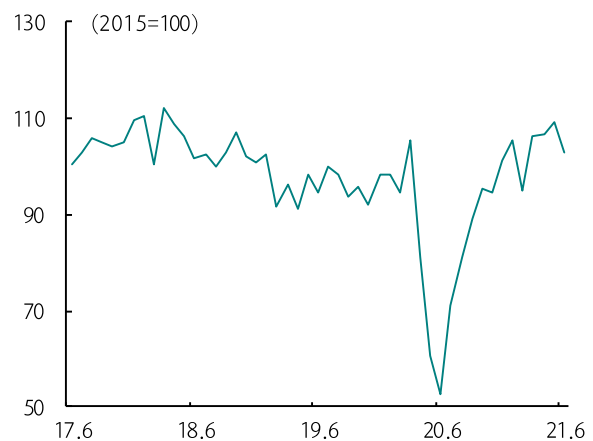
- 21년 들어 유가가 강세를 기록하며 화섬원료 가격은 1~6월 평균 전년동기비 23% 상승
- 21년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의류 소비 증가, 산업용 소재 수요 증가로 화섬 수요도 증가하면서 주요 화섬제품의 가격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화섬 제품의 스프레드는 양호한 수준 지속 중

그림32 | 화학섬유 출하지수



자료: 페트로넷

그림33 | 국내 화학섬유 가동률 추이



자료: 페트로넷

■ 의류, 산업소재 수요 회복으로 19년 수준으로 회복

-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 경량소재 수요 증가로 산업용 화섬 제품 수요 증가세 지속
- 21년 1-6월 평균 출하지수는 높은 수준 지속 95(2015=100)으로 코로나19 이전과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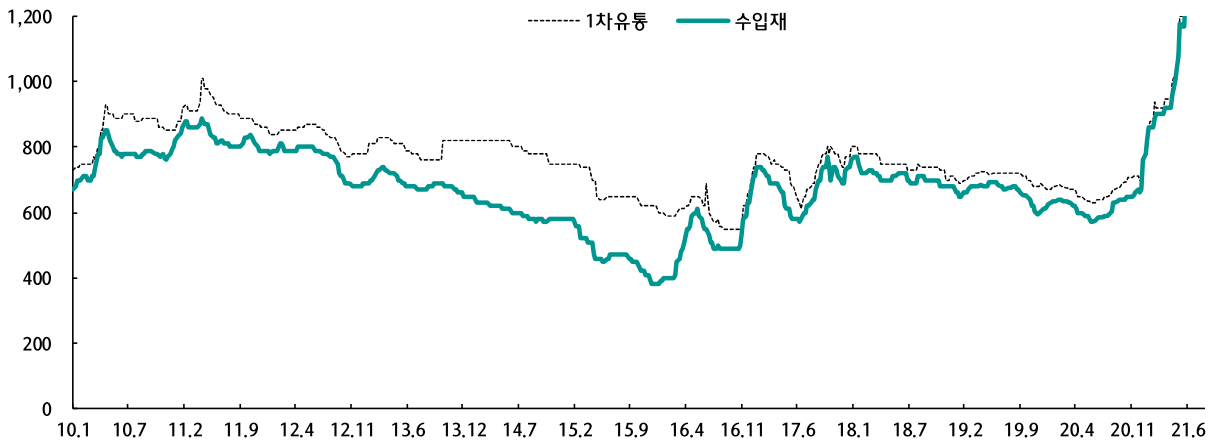
■ 화학섬유 수요 증가로 화섬 가동률 상승

- 21년 의류 및 경량소재 수요 증가로 화섬 제품의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 실제 21년 1-6월 가동률 지수는 104.2(2015=100)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대비로도 높은 수준을 기록

철강(C2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할향 둔화

그림34 | 국내 철강(고로 열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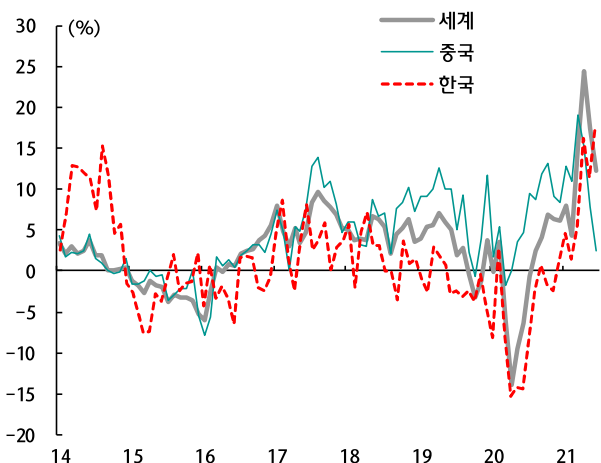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신문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철강가격이 6월 이후 소폭 조정

- 2021년 상반기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 등의 전방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및 원자재(철광석 및 석탄) 가격 급등에 따른 cost push 영향으로 주요 철강제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
- 그러나 6월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철강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는 등 철광석 및 철강산업의 감산 불확실이 커진 것과 관련

그림35 | 전 세계 조강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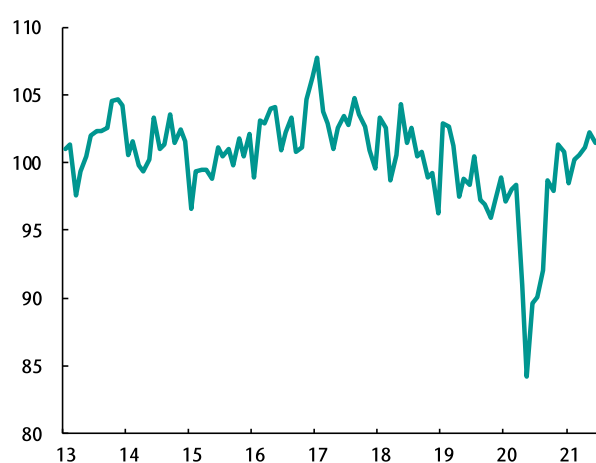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 상반기 전 세계 조강 생산량 14.4%(YOY) 증가

- 2021년 상반기 조강 생산량이 중국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팬데믹 이전('19년 상반기) 수준 이상으로 회복

그림36 |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국내 금속 출하지수의 변동성이 둔화

- 2020년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인 국내 금속 출하지수가 2021년 들어서는 등락을 보이며 안정되는 모습

반도체(C26)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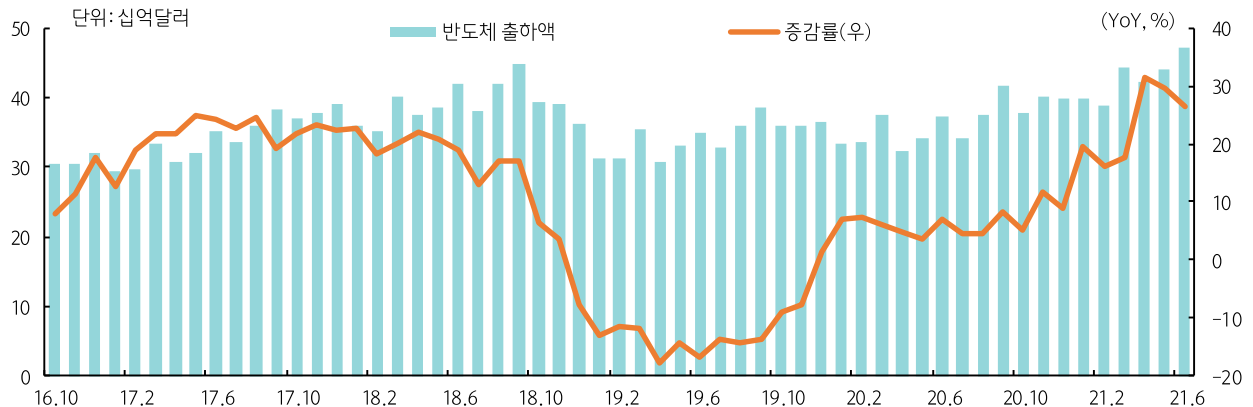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7 | 전 세계 반도체 출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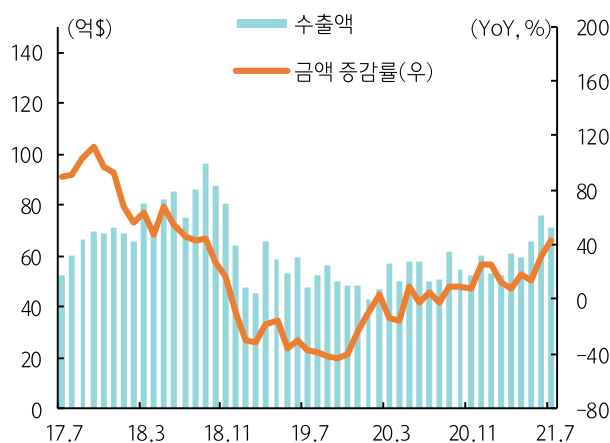


자료: WSTS

■ 글로벌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 지속과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호조 지속

- 6월 세계 반도체 출하는 471억 달러로 26.3% 증가(YoY)하며, 6개월 연속 두 자리수 성장을 이어감
- 세계 반도체 출하 증감률(YoY, %): 17.8('21.03) → 31.6('21.04) → 29.5('21.05) → 26.3('21.06)
- 6월 지역별 출하 증감률(YoY, %): 20.4(북미), 37.7(유럽), 24.0(일본), 27.3(아시아)

그림38 | 반도체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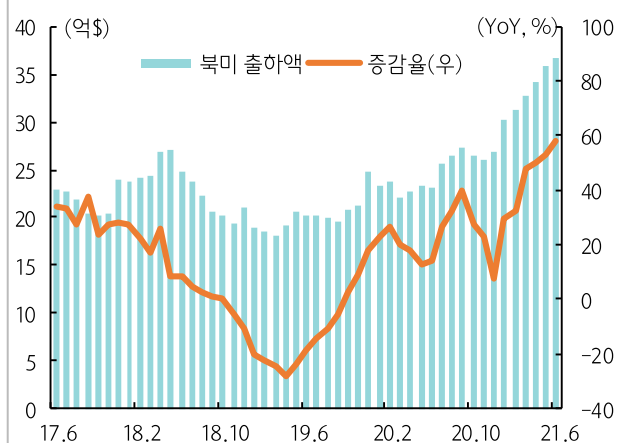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반도체 수출 성장세 상승(+38.8%)

- 7월 반도체 수출은 110.5억달러로 38.8% 성장(YoY)
- 견조한 수요로 메모리 및 시스템 동반상승
- 3분기 메모리 고가격이 2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출 실적 역시 호조가 지속될 전망

그림39 |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자료: SEMI

■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증가율 성장세 지속

- 6월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성장세 지속(58.4%, YoY)
- 북미 장비 출하는 반도체 시장을 6개월 정도 선행
- '20년 하반기 이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 전망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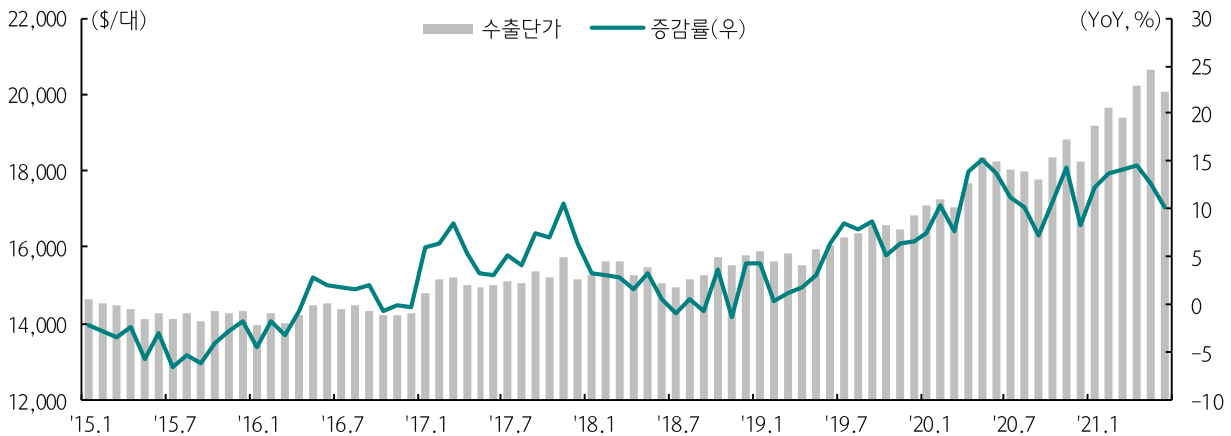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0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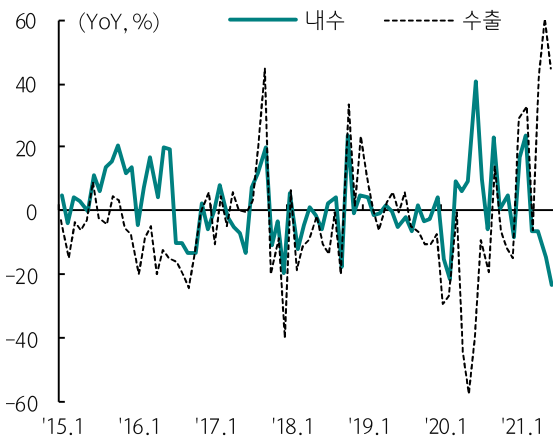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1년 6월 수출단가는 대형 SUV/고급 브랜드 및 친환경차 수출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 6월 수출단가는 대당 20,081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 상승하며 호조세를 지속
-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수출 단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금액도 전년동월대비 59.6% 증가

그림41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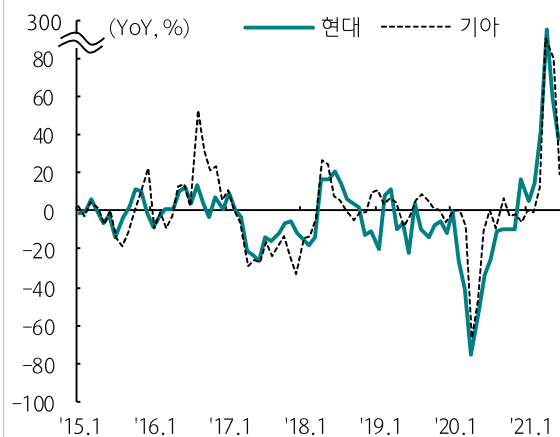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1년 6월 내수 부진한 가운데 수출 양호

- (내수) 전년 개소세 인하 및 세제혜택 등에 대한 역기저 효과, 반도체 공급부족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3.4% 감소
- (수출) 전년 글로벌 수요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 EU 등의 수요 회복으로 전년동월대비 44.9% 증가

그림42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6월 해외생산 회복세 지속되나 개선폭 완화

- 전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냄
- 현대차는 전년동월대비 37.4% 증가, 기아차는 19.5% 늘어난 가운데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완화되는 추세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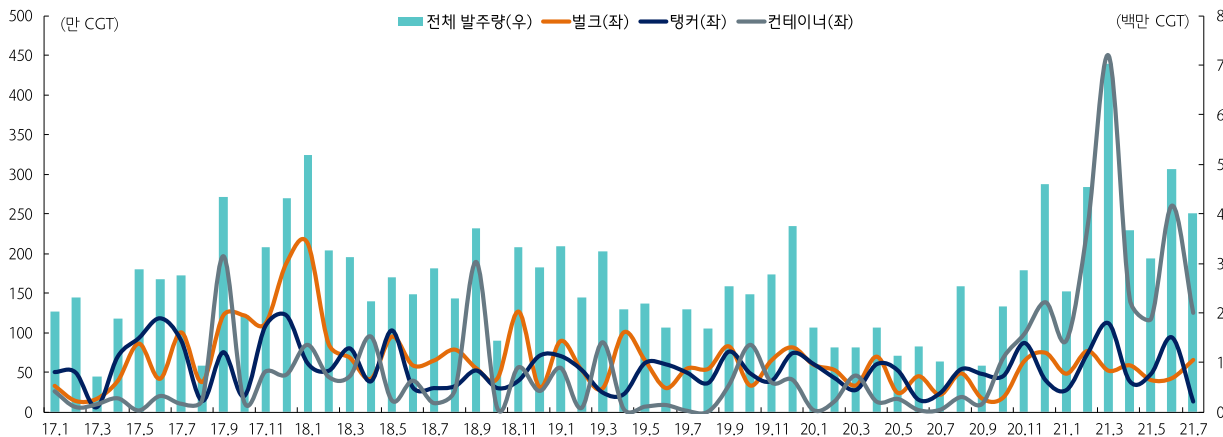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43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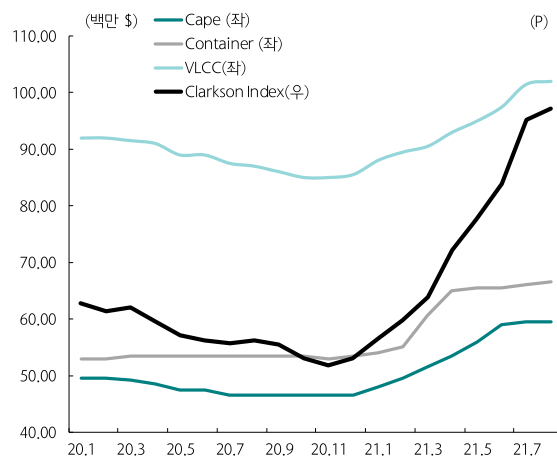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7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올해 월별 기준 최대수준으로 해운 호황에 따른 수주 증가 이어져

- 7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약 4백만 4천CGT로 전월대비 17.9% 감소하였으며, 선종별로는 컨선, LNG 발주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탱커선 발주는 침체
- 7월 주요 선종별 발주 척수(총 114척) : 탱커선 5척, LNG선 21척, 벌크선 34척, 컨테이너선 30척 등

그림 44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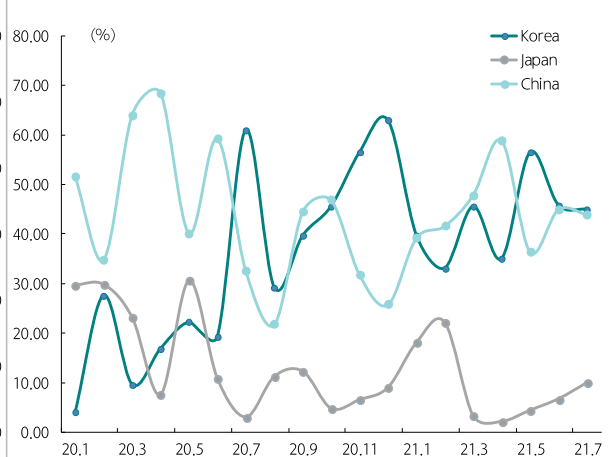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8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44p 기록

- 8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한 144p를 기록하였으며, 탱커선과 벌크선 신조선가 지수는 강보합
-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Cape선 \$59.5M, VLCC \$102.5M, 5,500TEU 컨선 \$66.5M, 174K CBM LNG선 \$196M

그림 45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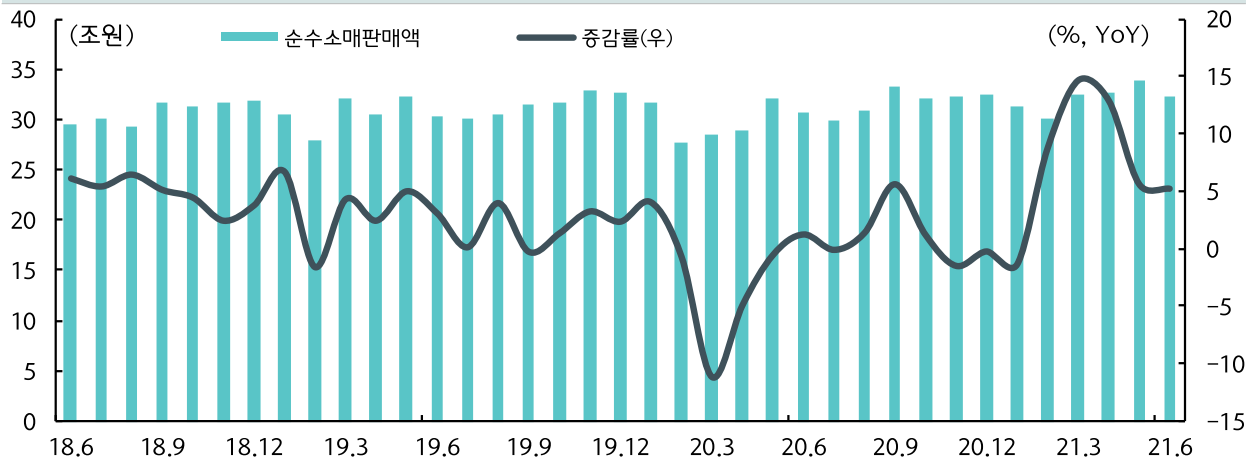
■ 7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한국이 1위

- 7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45%와 44%로 비슷하였으며, 일본은 9.2%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 한국 수주 : 대우조선해양 1척, 삼성중공업 4척, 현대중공업 7척, 현대삼호중공업 9척, 현대미포 8척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6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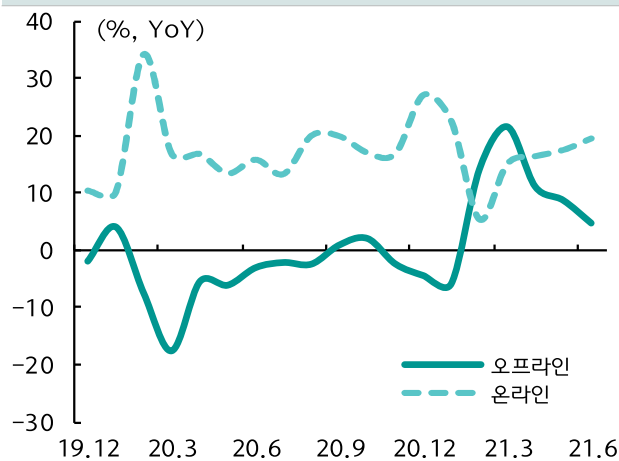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6월, 전년도 낮은 기저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회복세 지속

-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소비 심리가 6월까지 개선세를 보여 왔으며, 전년도 낮은 기저 효과로 인해 전월(5월)과 유사한 수준인 전년동월대비 5.2%를 기록

그림47 |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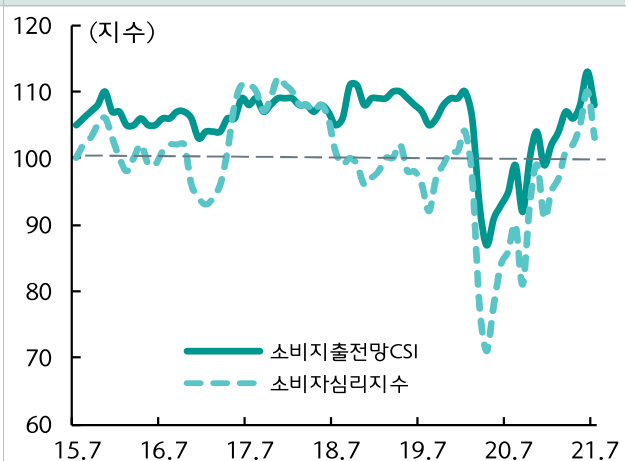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6월, 온·오프라인 모두 성장세 유지

- 오프라인 판매액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저효과와 완화로 성장폭 축소
- 온라인은 비대면 소비 트렌드로 인해 성장세 지속. 6월에도 식품, 패션, 서비스 성장으로 YoY 19.6% 성장

그림48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 7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 위축

- 코로나19 진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가 6월까지 개선세를 보여왔으나 7월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7p 감소한 103 기록
- 소비지출CSI도 전월대비 5p 감소하면서 108 기록